

▣ 응용논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화 과제
-A Subject on the Consolid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Industrial Standar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윤 덕 균¹
Yun, Doek Kyun

Abstract

Now,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 is much higher than any other times and the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politics, have been tried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nations. Most of all, overcoming the industrial differe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bout 50% of export goods has been put in the claim in South Korea because of quality problems. And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is because of industrial standards. These kind of problems would be occur with economic co-operation, so the study about the standards of North Korean industries is much important before the trades is boomed. And this research would decrease the expense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before the difference would be larger than now. That's why the conference for industrial standar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held soon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s of industrial standards.

This paper not only suggested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the industrial standard unification, but also researched North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nd quality inspection systems with specific examples. And this study proposed some subjects of the industrial standard unification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standards between two nations.

1. 서론

전 세계의 이목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광장으로 집중시켰던 독일 통일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것이 어언 10년의 일이었다. 우리 민족에게도 통일의 염원을 간절하게 했던 세기적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 년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동서독의 통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통일에 거는 기대만큼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을 느끼게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 통일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분야별로 분단의 이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이 때 산업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산업표준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산업이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이중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 경제 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1980년대 초부터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고 수출과 무역 확대를 강조하였다.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 한양대학교 시스템 응용공학부 산업공학과 교수

방침을 세웠고 1984년 9월에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택하였다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지난 1988년 7월의 “특별선언”과 그 후속으로 그 해 10월 발표된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과 1989년 6월 12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남북한의 교역규모는 1997년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약 3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그 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 1998년에는 2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치가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급속히 진전되지 않는 것은 잠수함 사건이나 미사일 협상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남북 대치 상황의 전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도 “남북한 관계는 경제협력으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여전히 고조되어 있으며, 지난 6월 15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본 궤도에 이르려면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해결만 된다면 남북경협은 현대 금강산 관광 개발의 예와 같이 폭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산업의 이질성을 해결하는 산업 표준화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 기업이 구미에 수출할 경우 클레임의 원인 중 상당부분이 품질 문제이며 그 중 일부분이 산업표준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남북 교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다발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기업들의 교역이 활성화되기 이전이라도 남북한 표준 연구를 통한 규격 통일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날로 증대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남북한 산업표준의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적 요구라면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산업표준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적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신창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에서 비표준화로 기인되는 비용을 보면 인력손실 3~4%, 자재손실 2~3%, 생산성 저하가 3~10%로 최저 8%에서 최고 17%의 손실을 예측하는 것을 감안해서 통일비용의 일반적 산출비용에서 8~17%를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해서 추정하면 산업의 비표준화에 의해서 기인되는 통일비용은 1,600억 달러에서 3,4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시 바빠 남북한 표준화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아직은 남북의 산업 격차가 심하고 북한의 경우 아직 초보단계이거나 시작도 하지 않은 산업이 많기 때문에 산업표준화를 통일 전에 이룩할 수만 있다면 통일 비용은 많이 절감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시 바빠 남북한 산업표준화 회담을 개최해야 하는 이유이며 빠른 만큼 통일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화 과제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표준 규격과 품질검사 시스템을 살펴보고 북한의 국가 규격과 한국의 국가 규격을 비교하며, 남북한이 최근에 합의에 도달한 로마자 표기 남북통일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산업표준의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북한의 산업표준화

2.1 북한의 표준화 조직

현재 북한도 대외 개방을 앞두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구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를 적절히 갱신하지 못한 정보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실낱같이 비치는 햇살과 같이 그들의 대외에 발표하는 자료와 남북 접촉에서 나타나는 내용, 국내외 언론이나 통일문제

연구소, 그리고 ISO를 통해서 모아진 정보들을 정리함으로써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표준화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2.1.1 북한의 표준화 기구

북한은 1963년 6월21일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 표준화 기구)에 우리 나라와 함께 가입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공산품의 국제 규격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역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표준화 활동을 총괄하는 부서로는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산하 국가 규격위원회(CSK :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있다.

국가과학 기술위원회는 정무원 산하의 경제부처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무원은 우리 나라의 내각과 같은 것이다. 북한에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있는데 그 산하에 경제부문을 담당하는 정무원이 있다. 정무원은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및 지방행정 경제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고, 국가 경제계획 작성 및 국가 예산편성,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대책의 수립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당의 경제전문부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무원 11개 위원회중에 국가과학 기술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처와 산업자원부의 업무를 혼합한 기관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산하의 규격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규격집 및 국가 규격을 수집하고, 제품별 국가규격을 개발하여 제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1.2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표준화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산하의 규격위원회로 총 165명의 인원이 100% 정부예산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규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국가규격의 제정, 심의
2. 규격서 발간 및 보급
3. 인증(상품에 대한 규격표시)
4. 품질관리 업무
5. 계량
6. 응용공업 연구
7. 교육 및 홍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격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의 업무와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셈이 된다.

상기 업무중에서 규격서의 발간 및 보급은 국가 규격제정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국가규격을 보면 1984년 이전의 규격은 국가규격 제정소에서 발행하고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84년 규격의 경우는 규격제정 연구소에서 발행 인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85년 이후의 규격도 역시 국가규격제정 연구소에서 발행 및 인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규격발간 및 보급기관이 여러 개인 것 같지는 않고, 한 기관이 기관명을 수시로 변경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의 규격으로 1995년 5월 23일 발행된 시험환경 표준조건(분류 Q 30, KPS 6174-95 ISO 554 - 1976)에서 보면 발행 및 인쇄소를 국가규격 제정연구소로 하고 있다.

2.2 북한 국가규격의 구조와 산업표준화

북한의 국가규격은 현재 약 13,000여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10,000여종으로 표준화활동을 총괄하는 부서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산하 국가

규격위원회가 있다. 국가 과학 기술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규격을 참조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체규격인 국규(국가규격)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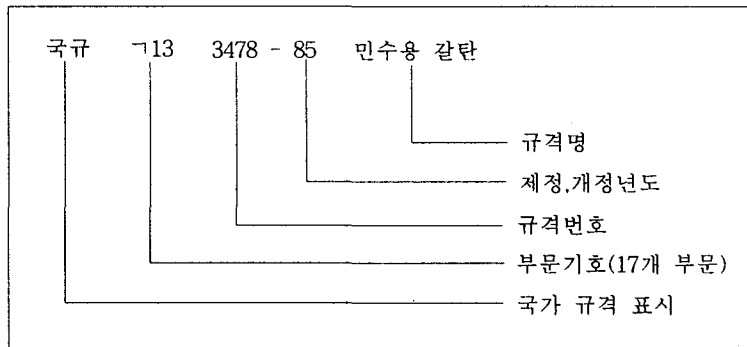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규는 구소련의 국가규격을 모태로 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볼트, 너트 등 국제적으로 표준규격화된 제품들은 국제규격대로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국가규격이 한국과 다른 점은 완전히 강제 규격이라는 것이다. 모든 북한규격에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격제도를 세우고, 검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라는 김일성 교시에 명시되어 있다.

2.2.1 북한의 국가규격의 분류, 표기

한국규격(KS)이 업종별 및 분야별로 2단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국가규격은 용도 및 제품위주로 3단계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기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먼저 국규라고 하여 국가규격임을 표시하고, 그 다음 “ㄱ”에서 부터 “ㅅ” 까지 17개의 문자를 써서 부문을 나타내고, 바로 다음에 두 자리 숫자로서 세부분류를 표시하며, 그 다음 규격번호 그리고 제정연도와 규격명을 표기한다.

민수용 갈탄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먼저 국규는 국가규격이라는 표시이며, 부문기호 “ㄱ”은 광업 및 유용광물 표시라는 것이며, 13에서 1은 탄화물광물이라는 표시이며, 13은 갈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3478은 규격번호를 의미하며, 85는 1985년 동 규격이 제정되었음을 의미하고, “민수용갈탄”은 규격의 명칭이다.

그런데 94년 이후의 북한의 국가규격은 국규라는 표기 대신에 KPS를 사용하고 있는데(예를 들자면 1994년 3월 8일 제정의 석탄회분 화학분석법은 국규라는 단어 대신에 KPS 2876.8 - 94로 표기하고 있음) 이것은 북한이 개방화되면서 한글 대신에 우리 나라와 같이 영어의 알파벳으로 국규 대신 KPS로 표기를 바꾸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림 1> 북한의 국가규격 표기법

2.2.2 북한의 국가규격의 분류

북한의 국가규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7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분야는 <표 1>과 같다. 괄호 안은 그에 상응하는 KS의 분류 기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분류는 남북한이 유사하나 북한이 17개 부문으로 세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15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어서 분류면에서는 북한이 세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항공 산업이 빈약한 관계로 운수수단 및 용기로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수송기계, 조선, 항공 등 3개 분야로 세분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반면, 한국이 원유제품과 화학을 한데 묶고 있는데 대해서 북한은 이를 나누고 있으며, 북한은 나무제품은 한 분야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토건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국가규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7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분야는 <표 1>과

같다. 괄호 안은 그에 상응하는 KS의 분류 기호이다.

17개 부문에는 다시 1자리 수를 써서 중분류하고 있는데 ㄱ편의 광물, 유용광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ㄱ편 광업, 유용광물
- ㄱ0 광물에 대한 일반규정 및 기준
- ㄱ1 탄화물 광물
- ㄱ2 탄화 수소광물
- ㄱ3 금속광물
- ㄱ4 자연석재
- ㄱ5 비금속 광물

<표 1> 북한의 국가규격의 분류 분야

분류기호	분류분야	상응하는 KS 분류
ㄱ	광업, 유용광물	(KS E 광산)
ㄴ	원유 제품	(KS M 화학)
ㄷ	금속 및 금속 제품	(KS D 금속)
ㄹ	기계, 설비 및 공구	(KS B 기계)
ㅁ	운수 수단 및 용기	(KS R 수송기계, KS V 조선, KS W 항공)
ㅂ	동력 및 전기 설비	(KS C 전기)
ㅅ	건설 및 건재	(KS F 토건)
ㅆ	요업재료 및 제품	(KS L 요업)
ㅈ	통나무, 나무, 나무제품, 펄프, 종이, 판종이	(KS F 토건)
ㅋ	화학제품 및 고무, 들숨제품	(KS M 화학)
ㅌ	방직 및 가죽재료와 그 제품	(KS K 섬유)
ㅍ	식료품 및 기호품	(KS H 식료품)
ㅎ	측정 계기 및 기구	(KS B 기계)
ㄱ1	보건 및 위생용품	(KS P 의료)
ㄱ2	농업, 산림 및 축산	(KS H 식료품)
ㅁ	과학 기술용어, 기호 및 수치	(KS A 기본)
ㅅ	문화 생활용 제품 및 관리	(KS G 일용품)
17개부문		15개 부문

이렇게 중분류된 분야는 다시 2 자리수를 써서 소분류하는데 "10 광물에 대한 일반규정 및 기준"에 대한 소분류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광업에 대한 일반규정 및 기준
- 100 용어 및 기호
- 101 기술 문헌
- 102 계산 및 설계 기준
- 107 안전 기술
- 108 적용 및 운영
- 109 시험법, 포장, 보관 및 수송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국가규격은 한국의 KS에 비해서 질적인 면에서는 열세이나 양적인 면에서는 강제규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에 만난 북한의 국가규격위원회 위원장인 홍린택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규격은 13,000여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며, 1990년 12월 31일 현재 북한규격의 총수와 2000년 현재 한국의 규격의 총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한 규격수 비교

구 분	한 국(2000년 ○월 ○일 현재)	북 한(1990년 현재)
총 국가 규격수	10,596종	9,648종
기계	1,740종	2,542종
광석 및 금속	1,189종	1,339종
화학 및 관련 산업	1,961종	1,996종
농업	148종	362종
정보처리 및 문서 및 행정	544종	111종
건축	586종	297종
보건 및 의료 장비	327종	371종
수송	594종	691종
기본	538종	93종
전기기술	1,097종	1,308종
기타	1,872종	538종

3. 남북한 산업표준회담 사례

3.1 한글 로마자표기 통일안 도출 사례

유엔에도 2 개의 국가로 각각 가입하고 있으며, 올림픽에도 2 개의 나라로 출전하고 있는 등 남북한은 대외적으로는 2 개의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서로 하나의 국가임을 주장하는 분단국이다. 이와 같은 맥락은 국제 표준화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도 1963년 6월 21일에 두 나라가 동시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묘한 남북관계를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합의서 서문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회담은 국가간의 회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내문제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완전히 국가이익에 충실한 경제외교라면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 차라리 쉬울 수 있는 국가간의 회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애국애족심 만으로 타협이 가능한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서해 해상충돌과 같은 일촉즉발의 적대국 사이인 반면 어느 때는 민족적 자비심으로 무상의 식량원조를 해야 하고, 통일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동족국가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남남이라면 해결이 무난할 것을 형제간의 송사에서 해결이 더 어려운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산업표준의 통일회담은 멀고도 먼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표준화의 통일을 위한 남북한 회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발의에서부터 타결까지 7년 이상을 소비하면서 5차 회담에서 가까스로 성공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남북한 합의 도출” 사례를 통해서 남북한 회담에서 얼마나 인내심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가를 실감하고자 한다.

3.1.1 로마자 표기에 관한 남북한 합의 도출의 경과

국제표준화 기구는 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우리나라 말을 비롯하여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스어 등 각국의 문자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표준화하여 세계 각국에 보급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국제규격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침의 일환으로 85년 11월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규격초안을 제출해 주도록 우리 나라 공업진흥청에 요청하여 왔다. 물론 동일한 요구를 북한의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 같은 시기에 하였다. 이에 의거 1986년 2월 청와대 주관으로 문교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연석회의에서 현행 교육부 표기방법과 별도로 국제기구에 제출할 “기계화를 위한 로마자 표기방법”을 공업진흥청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진흥청에서는 86년 3월 ISO에 제출할 한글의 로마자 표기방법 초안을 한국정신문화원 송기중 박사팀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1986년 9월 한국정신문화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성안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방법 초안”을 공청회(업계, 언론계, 교육부 전문가 참석)와 공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ISO에 제출하였다. 물론 이 때 북한에서도 초안을 제출하였다.

3.1.2 ISO 심의 경위

남북한의 초안을 접수한 ISO는 국제규격제정 실무조직 중에서 정보 및 문서기술 위원회인 제 46 기술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중에서 문어의 전환 소위원회인 제 2소위원회에 한글의 로마자 전자를 위한 제 4작업반으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심의함에 따라 동 작업반에서 1987년 5월 20일 모스크바에서 국제규격 초안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1985년 ISO가 초안을 요청한지 7년, 처음 모스크바 회의가 개최된 지 5년만에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3.1.3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국제표준 제정의 의의

동 회의의 성공은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남북한의 합의로 세계적으로 통일한 최초의 쾌거를 거양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로 국내 지명 및 각종 표기상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 자료를 컴퓨터로 검색할 경우 각자의 표기법에 의해서 야기되던 혼란을 해소하고, 텔렉스 등 통신시 혼란이 방지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동 합의의 이행상태는 아직 점검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행상태는 불만족상태인 것은 확실하다. 우리 한국은 산업표준 즉 KS라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선택지방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를 장려할 방책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실행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3.2 컴퓨터 처리 한글통일안 도출 사례

한글의 로마자표기에 대한 남북한 통일안이 남북한 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남북 합의 안이라면 컴퓨터처리 한글통일안의 도출은 순수한 민간접촉을 통한 합의안 도출이라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동안은 26개 자소중 국낸 자판과 배열이 다른 것이 무려 17곳인데 대해서 북한의 국규자판과는 10개만 다르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안은 북한 자판배열을 같은 단에서 좌우로 한 두 칸만 바꾼 것이 대부분인데 대해서 국내자판은 하단의 자소를 상단으로 옮기는 등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남북한의 학자들이 모여서 사심없이 학문적 양심으로 남북한 통일문제에 처음으로 통일안을 도출했다는 면에서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비난에 앞서 이를 교훈삼아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회담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2.1 코리언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코리언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는 1994년도에 이어 199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1996년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3차에 걸친 마라톤회의에 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여기서 왜 남북한 회담이 되지 못하고 국제학술대회가 되었는지부터 집고 넘어가야겠다. 최근 북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북한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회담을 개최할 수 없어 중국의 조선자치주 연변과학기술협회 주관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북한이 참석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을 참여시킨 다자간 협상식으로 동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다.

3.2.2 2차 코리언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1995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국 연길시 연변호텔에서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과학기술협회 주관과 중국 연변 전자 정보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중국, 북한, 남한 및 재외교포를 포함한 교수, 컴퓨터 전문가, 언어학자, 정부기관대표자, 산업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글의 컴퓨터처리에서의 자모순, 용어, 자판, 부호 및 기타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서 민족사용 공동안을 만들어 냈다.

3.2.3 제 3 차 KOREA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3차 회담의 합의내용은 정보처리용어 통일안, 자판배치 공통안, 우리 글자 배열순서 공동안, 부호계 공동안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끝났다.

4. 남북한 산업표준통일화 과제

이러한 한국과 북한 산업표준체제상 상당부분이 상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한국의 산업표준은 일본 및 미국규격을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대하여 북한의 산업표준은 구소련 규격을 모태로 중국규격을 혼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함께 ISO(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ISO규격의 채택으로 인하여 일부규격은 일치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교역을 할 때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표준차에서 오는 갈등이 클 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격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선택시방인데 대해서 북한의 국가규격은 엄격히 지켜야 하는 강제규격이므로 우리 기업이 북한에 수출을 시도할 경우는 클레임이 발생될 소지가 큰 것이다. 품질에 대한 개념부분에 있어서도 우

리 나라의 경우 품질특성치가 망소특성(적을수록 좋은 특성)인 경우는 얼마 이하로 망대특성(클수록 좋은 특성)인 경우는 얼마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 규격에는 망소 특성이나 망대 특성에 구분없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는 식으로 완벽하게 규격상하한치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합격품이 북한에서는 불합격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TV를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있지만, 우리 TV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쓸 수가 없다. 우리 나라는 NTSC 방식이고, 북한은 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를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자판의 배열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서 한국과 북한은 국어사전의 자모음의 배열이 전혀 다르며, 쌀 한 가마니의 포장단위도 다르고, 전기의 표준전압, 기관차의 신호와 제어방식 등 그 어느 것도 남·북한은 일치하지 않는다. 당장 통일이 되면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는 판문점 근처에서 기차를 바꿔 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서로의 표준규격(KS, CSK)을 상호 교환하고, 남북한 산업표준규격 및 이질적 산업용어들을 비교하여 동질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산업규격에 대한 상호 인증도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이 사용하고 있는 남북한의 산업표준규격을 상호 협상에 의하여 통일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그에 과급되는 소요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중 하나는 남북이 서로 표준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장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과 앞으로의 남북경협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될 산업표준들을 먼저 통일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 대비 서로의 규격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새로이 제정되는 남북한의 규격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ISO 등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이 제정되는 규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같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1년에 최대 3000여 개의 새로운 규격이 생길 경우 각각의 규격에 대하여 협의하고, 회담을 진행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격에 대한 100%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대신, 남북한이 앞으로의 규격제정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부문의 국제규격을 중심으로 제정한다는 대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각 부문에 대한 국제규격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채널은 가능한 고위급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실무급에서는 한국의 한국표준협회나 산업기술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규격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실행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규격을 제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통일이후 산업규격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산업표준 제정시 남북한 표준을 국제규격을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남북한 각각의 산업표준에 관한 과제
 - 국제표준의 적용시 남북한의 표준 사용용도에 따른 동질성과 이질성 파악
 - 개개의 산업 부문별 표준의 상대적 수준과 국제표준의 쌍대 비교
 - 국제표준의 적용을 위한 북한의 표준화의 실태연구
- 2) 남북한 산업표준설정의 단계별 연구
 - 1단계 : 북한을 타국가로 취급하였을 때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TBT 협정)같은 기술규정과 표준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
 - 2단계 : 남북한 산업표준(규격, 심의, 인증, 검사제도 등)의 이질성에 대한 점진적 통일화방안 논의
 - 3단계 : 남북한을 동일 국가로 취급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산업표준 통일과 단계별 수

용절차 수립

- 3) 북한의 산업 부문별 산업표준에 관한 비용구체화 및 파급효과 조사
 -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제정 회의에 대표단 구성방안 수립
 - 표준화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방안 수립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대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표준의 동질화의 필요성과 북한의 산업표준 현황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 남북한 산업표준의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업표준의 통일화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통신의 시외 및 국제전화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효율이 높은 유럽방식으로 통신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북미식 관전송장치를 설치함으로써 51억원의 낭비와 최근에 과천선 사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철도청과 지하철 공사 사이에 표준화가 안 되어서 수 천억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해방 후 50년간 분단된 남북한의 비표준화에 의한 통일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추정된다.

아직도 남북의 산업격차가 심하고, 북한의 경우 아직 초보단계이거나 시작도 하지 않은 산업이 많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북한의 동의를 얻어 ISO 등 국제규격에 맞는 산업표준화를 통일전에 이룩할 수만 있다면 통일비용은 많이 절감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의 열세인 북한 규격수준의 KS 수준으로의 제고를 통한 기초소재 품목의 남북한 호환성증대로 국내 산업계의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으며, 통일규격에 따라 남북한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국제규격에 기초한 남북한 산업표준 통일로 인한 국제적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향후 통일시 국가규격수준의 향상 및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합의에 이르기전까지 지루한 공방에 대해서 미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도달 시간을 줄인다면 그 만큼의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북한 경제가 어떤 표준을 선택하기 이전이라면 더욱 동의는 쉬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우리가 한시 바빠 남북한 산업표준화회담을 개최해야 하는 이유이며, 빠른만큼 통일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업진흥청, “KS 분류체계의 국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1995.12
- 공업진흥청, “KS 와 대응되는 국제규격조사 연구“, 1995. 12
- 국가정보원, “북한의 국가 규격“, 1995.12
- 국립기술품질원, “북한표준에 관한 연구“, 1996.12
-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 연구소, “북한 용어 300선집“, 1993
- 동광출판사, “조선말사전” 상, 중, 하권, 1992.3
- 한국 표준 협회, “KS 총람“, 1995
- 한국 표준 협회, “한국 산업 규격(KS)”